

제8부 회원들의 문원(文園)

능선을 바라보며

Dr. 부영무(서울대 '79)

해 지는 별판을 바라보며
고향의 어딘가를 걷고 싶었다.
점점 공허해지기만 하는
년로의 언덕에서
무언가로 채우고픈 욕망의
빈 가슴이 허덕임을 느낀다.

돌아보니 삶의 가장자리로
갈 때마다
내 옷자락을 잡고 끌어당겨 준 것은
내 직업이라는 소명이었다.

각자의 작은 공간을
때로는 왕처럼 때로는 문지기처럼
그리고 때로는 탈출해야만 할 감옥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치과의사라는 공통의 별을 달고있다.

치과에서만큼 우리라는 의미가 더 심장할 수 있을까?
어느 치과의사부인이 남편의 직업을
다른 치과의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등뒤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때로는 내안의 사탄과 싸우느라 생기는 줄 알겠는가?

경쟁의 대상같이 여겨질 수 있는 우리 서로가
사실은 한술밥을 먹고 있는 형제이고
형의 손가락이 다쳤을 때
그 선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동생이며
도한 그래서 공감과 위로의 대상임을
우리 서로 알지 않는가?

봉우리가 하나인 산도 능선은 여러 자락
우리가 쉬어갈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늑한 능선의 하늘
우리 서로 위로의 능선이 되어주고
만남의 자락을 만들면
화해와 질서는 봉우리로 가는 길을
만들지 않을까?

달빛 나무

시인 윤석훈(단국대 '87, USC)

창문 밖 나무 하나
외로운 달빛이 애무하고
선명한 풍경에 부끄러운
얼굴 떨구하고 있다
잎들은 큰 바람에 형클어지고
달빛 물결 소리내어 일렁거린다.

침실 끝에 선 나무 하나
젓빛 잎새 창틈을 두드리고
밤고양이의 유린을
모면하는 전령으로 남고
지하로 숨은 뿌리는
흔들림 없는 평정으로 세월을 이기고 있다.

Dr. 윤석훈은 최근 한국 현대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주요작품으로는 '눈동자' '셀폰 사랑' '연어의 꿈' '내님의 사랑' 등이 있습니다.

고 김선호 동문을 기리며

Dr. 정양(연세대 '77, USC)

간다
간다
이제 간다

오늘은 슬픈 날
이제 친구는
우리 곁을 떠나려 하는구나

비록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이 있더라도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너의 삶의 시작은 알 수 없었지만
늘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많은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너의 아름답고 진솔한 삶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으니
지난 너의 삶이 결코 헛되도다 할 일 없구나

찰나의 한 순간인 우리의 짧은 삶에서
겨우 한발짝 먼저 너를 떠나 보내는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남아 있으리오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남아있는
너를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일깨워주던
너 이기에
천국에 먼저 가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다시 만날 다음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을 너는
분명 우리의 믿음의 천사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영원히 남아있을 너를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잠시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을 뿐이다.

2003년 12월,
떠나가는 친구를 돌려세우지 못해 슬픔 밤에

기차길

Dr. 강치범 (경희대 '75)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 나는 진주를 떠나 부산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부산은 내 고향보다 무척 큰 도시였다. 나는 낯선 도시가 싫고 정든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난생 처음 경험 해보는 지독한 그리움이였다. 밤에 꿈을 꾸면 나는 탕자나무 울타리가 둘러선 친구 집 마당에서 놀다가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기차길에서도 놀았다. 기차길은 우리를 멀리 나가보도록 꼬드기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거두어 들였다. 심심한 철로는 떠들썩한 우리만 있으면 신바람이 났다. 꿈에서 깨어나면 아쉬움으로 마음이 쭉쭉 아려왔다.

어느 날 나는 도시변두리에 있는 기차길 건널목을 건너게 되었다. 기차들이 여기서 노선을 바꾸는지 여러갈래의 철로들이 얽혀 있었다. 건널목이 그렇게 넓은데도 사람이나 자동차를 통제할 차단기 하나 없었다. 혼자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차길에 들어서서 좌우를 살펴보니 내가 밟고 선 기차길 앞쪽에 있는 철로 위로 멀찌감치 기차가 달려오는게 보였다. 고향쪽에서 오는 기차인 듯 싶었다.

조용히 달려오던 까만 기차가 갑자기 기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기적소리는 목매여 울부짖는 울음이 되어 내 마음속에서 한참동안 맴을 돌았다. 기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서있는 나에게 누가 돌을 던졌다. 누가 장난을 치나 하고 돌아 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들이킨 숨마저 내 쉴수가 없었다. 내가 밟고 선 선로위로 등뒤에서 나를 덮칠 듯이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기차일까? 기차는 숨가쁘게 기적을 울리며 나에게 위급함을 알렸지만 귀머거리인양 서있던 나는 기관사가 던진 석탄들을 맞고서야 혼비백산해 물러섰다.

내가 지켜본 기차에서 난 기적소리가 착각이었다.

실제로는 등위에서 달려오던 기차에서 난 소리였다. 기적이 울리지않는 기차를 쳐다보며 왜 기적소리가 들린다고 믿었을까. 소리는 귀로 듣지만 때로는 마음으로도 듣는 것일까. 고정된 마음은 소리도 고정시켜놓고 듣는가. 착각으로 죽을 뻔한 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결론지었다. 나를 놀라게 한 기차가 내 앞을 지날 때 기관사 아저씨가 악을 썼지만 기차 소리가 삼켜버려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저씨가 고맙웠다. 나를 향해 던진 석탄 돌이 빛나 갔더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어린 마음에 충격이 너무 컸던지 그 후로는 기차길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버렸다. 덩달아 고향도 잊혀져갔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던 나는 쓴살같이 지나가던 세월이 머리 위에 흰 물감 설핏 튀기어 놓고 달아난 어느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 철로 건널목에서 멈추어 섰다. 기차가 지나가려는지 차단기가 내려와 길을 막았다. 그 날따라 기차는 왜 이리도 낯장을 부리는지, 문득 유년시절의 기차길이 생각났다.

마음속에 파묻혀있던 기차길이 흠먼지를 틀어내고 가지런히 솟아올랐다. 그것은 내가 사는 미국 땅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 고향 역에 가 닿았다. 낯익은 친구들이 반겨주고 나도 소년이 되어 기차길 따라 걸어갔다.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 주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른 손 주먹을 왼 손 바닥에 쓱쓱 비벼 올리는 몸쓸 장난질도 했다. 지나가는 기차만 보면 왜 그리도 심수이 났을까. 짙짙 그리던 개구쟁이 시절이 이제는 나그네 가슴을 가시처럼 찌른다.

자유권의 선물

Dr. 김학천(서울대 '77, USC '90)

사나운 삼월 비바람이 자두나무 가장이를 흔들며 지나갔다. 눈꽃처럼 매달렸던 작은 꽃잎들이 파르르 떨다가 더러는 떨어지고 더러는 남게 됨을 본다. 머지않아 그 자리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지만 자두 열매는 제 스스로가 선택해서 열린 게 아니다. 자두 나무이기에 자두 열매를 빚어 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단 하나는 아무개 자녀로 세상에 태어남이다.

모국(母國)도 마찬가지로 여긴다.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의 얼굴색이 아시아인이고 한국인 임은 삶든 좋든 주어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바꿀 수 없는 조건을 안고도 거주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삶의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져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길의 방향을 이땅으로 돌려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이곳은 미 합중국이란 이름이 의미하듯이 지구상의 각기 다른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이다. 다시말해 숙명적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 더 큰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허락한 곳이다.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많은 잘못 중 가장 큰 것은 인종차별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허나 이 문제는 저들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양심에 어긋나는 잘못임을 깨닫고 급회전하여 하느님의 신성(神性)을 닮으려는 고매한 정신으로 만민 평등과 자유, 사랑과 평화의 이념을 세계 속에 심어 놓는 숭고한 노력을 해 왔음도 우린 알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가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와 달리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라고 한 말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숭고한 정신에 힘입어 한국인도 미국 땅에 거주 할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 언제 이주해 왔으며 얼마나 살았던 간에 이미 우리는 이 나라에 소속인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이념에 동화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우려야 할 의무가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제 이땅에서의 한국인은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으로 이민2세들을 포함하여 웬만큼 우리의 위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의 목소리를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됨도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기 까마득한 이전부터 먼저 이땅에 깊이 뿌려진 가혹하게 쏟아진 수고의 땀과 인종차별의 유산을 멍에처럼 매고 흘린 희생의 피가 배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저들이 긴 세월, 강자에게 당했던 억압과 분노, 슬픔과 고통에 대해 부단한 저항과 싸움으로 일구어낸 터전 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저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신뢰심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사회에 공헌하는 정신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 것을 저들에게 보여야 한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한 후는 무엇보다 양심을 높이는 본능이 있다고 한다. 이 양심이 앞설 때 짧은 삶을 통하여 나눔의 마음과 의지로써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정신을 실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건강이나 지식, 재산 권력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할 때는, 더 가지려하며 못 가진 자 앞에서 물질로 우세하려하나 내적 삶이 지닌 탁월한 정신과 관대한 마음으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베풀 때는 얼굴색은 달라도 자선으로 인한 기쁨과 고마

움을 서로가 느끼게 되는 거라고 본다.

돌아켜보면 어느 누군들 자신의 삶을 위해 치열한 노력이 없을까 만든 세상은 노력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속담이 무색하게 정상에 오르고 싶던 성취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허무함을 적잖이 본다. 그럼에도 나누는 일을 그치지 않는 이들이 있어 미래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9.11 테러 대참사 이후에 이들 국민이 보여준 의연한 모습이 그러하다. 죽은 사람을 위한 추모식이나 적국에 가서 그들의 아이를 교육시키고 상처 받은 이들을 돌보는 모습은 우리를 숙연케 한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가 준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숙함을 보여 줄 때라 여긴다. 결코 멀지 않았던 가난한 시절, 한국인이 받아야 했던 모멸감을 기억하여 나보다 못하다 여겨지는 이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보다는 포용하는 삶에 동참함 이 옳을 것이다.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등을 한 번 더 두들겨 주고 생계가 막연한 이들에게 한줌 더 들려 주며 주저 않아 시름하는 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주는 적극적인 삶. 뿐만 아니라 늘 위축되어 눈치보며 사는 이에게 고운 눈짓 보내주고 슬픔에 빠진이의 손을 꼬옥 잡아주어 그 눈물을 닦아주며 상처 받은 가슴을 위로 할 수 있는 자애로움은 오히려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한다.

공기가 순환되고 물이 하늘 땅을 빙빙 돌아 구름되고 눈이 되고 물이 되어 바다로 갔다가 다시 수증기 되어 하늘로 오르듯이 가진 것도 나누어 돌려야 새로운 게 창조되는 신비함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내가 나 됨은 나의 노력을 포함해 가족과 이웃과 사회 그리고 나라에서 준 많은 도움이 있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아낌없이 준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마땅한 도리이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체험의 희열이 있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것이다.

자두 나무가 뜨거운 햇빛과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제공하듯이 우리도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심고 키워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보는 안목을 갖는다면 결국 천국 시민이 되는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이 내 안에 부여됐다는 놀라운 자유권의 선물을 발견함이다.

아! 일만 이천봉 금강산

- 북한 금강산 기행

Dr. 조상하(서울대 '70)

글월의 요지는 여행을 즐겁게 불려고 애썼고 또 그렇게 썼다. 금강산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단지 서울을 방문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꼭 봐야 할 명산이다.

봄이면 불리지는 금강산, 여름이 오면 다르게 불리지는 봉래산, 가을의 만산홍엽(모든 산이 붉게 불드는 단풍을 말함)의 풍악산, 겨울의 연가를 연상하게 하는 개골산, 같은 산을 두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4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지는가. 제일 높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쪽 일대를 외금강, 서쪽을 내금강, 바다로 나온 해금강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아세운 듯한 맑은 봉우리, 기암들, 절벽, 계곡, 폭포, 많은 물, 담소, 호수, 바다, 1천종이상의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의 걸작품이다.

서울에서 3월 23일(토) 남북 민간 교류협회(통일부 산하보조단체)의 주선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들의 나라, 나의 땅 북한을 향해 새벽 6시 30분 압구정동 현대 백화점 주차장에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속초를 향해 떠났다. 서울의 일곱 장소에서 편리하게 고급관광버스가 속초까지 안내를 한다. 잘 다듬어진 준고속도로로 정담을 나누면서 38선을 넘어 인제, 원통을 지나는데 이곳은 옛날에는 산세가 험준하고 험악하여 군기지가 많았고 문명의 전달속도가 늦은 지역이라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나 이제는 서울에서 당일로 낚시, 등산을 즐기는 곳이 되었다.

한가로이 움직이는 농촌 풍경을 보노라면 오른쪽으로 웅장한 울산암이 자태를 나타내면서 4시간만에

현대 속초항 여객 터미널에 닿는다. 이어 북한입국을 위한 수속을 하고 사진이 박힌 여권을 목에 걸고 오후1시 설봉호는 500~600명의 승객을 싣고 속초항을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간다. 이 때는 똑바로 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 모양을 따라 북한의 군사시절을 피해서 푸른 바다위를 잘도 달린다. 3시간 정도 갔을까 안내방송이 해금강이 왼쪽으로 보인다고 한다. 바다위에 떠있는 바위들을 보니 점점 북한땅으로 들어왔구나 가벼운 흥분이 온몸을 휘감는다. 4시간만에 고성항(북에서는 장정항이라 부른다)에 도착,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조국 이방지대(?) 땅을 힘차게 두발로 밟는다.

아! 내 땅인데 어째서 반세기가 넘도록 원망, 그리움이 교차되었던 곳인가. 무뚝뚝한 표정의 북한 심사원이 헐끗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도장을 찍어 준다. 미소로 답할려고 애쓰는 나의 표정이 어색할 정도다. 다음은 짐검사 물론 배를 타고 오면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 가져갈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는데 Cellular Phone, 160mm이상의 Zoom이 달린 Camera, 24x의 Video-Camera는 안된다. 검사대열에서 있는 인민군들한테 수고 많습시다 애써 진정하려는 나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고개만 끄덕이는 그네들을 보면서 가벼운 헛기침으로 마음을 달랜다. 그러나 짐검사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현대아산이 남한에서 가져온 고급버스에 몸을 싣고 제일 먼저 금강 온천(Hot spring)으로 향했다. 금강산 온천이 몸에 매우 좋다하는데 특히 게르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옥돌탕, 옥돌보행탕, 연주탕, 황토사우나 등 아방궁처럼 꾸며진 옥돌탕은 돈으로 발라 놓은 곳 같다. 몸에 좋다하여 들어갔다 나오고 쉬고 다시 들어가기를 1시간 30분 정도하니 피곤한 몸에 정신이 몽롱하고 험기증이 난다. 그래도 피부에 그만이라니 온몸을 다시 옥돌탕에 담근다. 정말로 살결이 매끈매끈하고 몸씨도 부드러웠다. 아내가 새신랑같다고 놀려댄다. 싫지는 않았다. 온천장의 2층에는 북한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주로 산수화)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몇 백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그리 비싼 것은 아니란다. 특히 북한은

자수(Embroidery)가 유명해 칠보산 호랑이 자수는 리귀숙 작품 6×4 크기로서 살아있어 금방 달려들 것만 같은 훌륭한 작품이 \$3,500에 Michigan에서 온 여자분이 샀는데 좋은 가격에 샀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음은 온정각 휴게소로 저녁을 먹으러 간다. 온정각은 현대 아산의 땅이나 다름없다. 여러가지 북한산 기념품을 파는 Shopping center, One-hour Photo, 조그마한 박물관, 정주영 회장을 모신 기념관, 식당, 오른쪽에는 거대한 금강산 문화회관, 병원시설, 넓은 주차장 등 많은 투자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온정각에 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천하제일 명산 금강산이라는 Post가 보이는 여기에서 꼭 기념촬영을 하자. 나중에 집에 와 사진들을 보노라면 이것이 금강산인지 설악산인지 우이동 계곡인지 애매하다. 여행중에 아침은 제공되나 점심과 저녁은 각자 표를 미리 사서 혼잡을 피하는게 좋다. 특히 채소는 인근에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서 사오며 절대 무공해 식품이라 그런지 맛이 유난히 좋았으며 여자분들이 특히 즐기는 것 같았다.

관광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크게 세종류로 나누면 무전기를 들고 깨끗한 복장을 한 젊은 사람과 관광 안내원들은 현대아산직원(한달씩 근무한다), 버스운전사, 식당에서 serve하는 사람들은 조선족(중국에서 살고 있다). 배의 승무원들은 필리핀 사람들이다. 목욕후, 무공해 식품으로 배를 채우니 내 기분이 최고라 이곳이 북한땅인지 Grand Canyon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간다. 식당을 나오니 맑디맑은 밤하늘을 보면서 절로 흥얼지는 노래가 내 가슴을 축축히 적신다.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삼천만 민족을 말함) 깜박깜박 정답게 지내이드니 웬일인지 별하나 보이지 않고 (8.15 해방후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짐을 뜻함) 남을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린다.' 남북이 헤어짐을 슬퍼한 동요다. 내 조국의 맑은 공기를 전부 들여마시고 싶다 허파에 닿고 배까지! 다시 버스에 몸을 싣고 설봉호로 잠을 자러간다.

이 때 또다시 출국심사를 한다. 일렬횡대 현대아산

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나는 '가반의 27번이다. 번호 순서대로 서서 짐검사 출국도장 무뚝뚝한 표정은 아침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한마디 했다. "조금이라도 웃어주면 우리들 긴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 내내 웃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로 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나의 일행들이 크게들 웃고 농담을 주고 받고 남과 북의 사슬이 끊긴 것처럼 잠시 평화를 가졌다. 출국심사후 걸어서 5분이면 설봉호 나의 잠자리가 있는 곳이다. 입구엔 잘생긴 현대아산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피곤하시죠 올라가서 푹쉬시고 꿈 잘꾸세요 얼마나 대조적인가.

입국/출국 심사는 3일 동안 매일 해야 한다. 그러나 해금강 호텔은 한번만 하면 된다. 설봉호와 100야드 정도 떨어져 있으며 6층 높이의 해상 호텔은 큰 유조선을 개조하여 그 위에다 호텔로 지었으며 이것 역시 바다위에 떠있다. 훌륭한 시설, 엘리베이터도 있으며 엔터테인먼트는 완벽하다. 설봉호는 공간이 좁으며 한 방에 2-4명까지 자야하는데 다행히 부부여행이라 그런지 방 하나를 차지했다. 설봉호 잠자리는 해금강 Hotel과 비교해 많이 떨어지지만 값이 싸고 8-9시간 배안에서 편안히 누워있을 수 있고 그동안 아내와 못다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나 6번의 출국/입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다.

3월 24일 일요일, 방안의 스피커를 통하여 일어나라고 잠을 깨운다. 6시 30분부터 아침식사가 있으며 7시 40분까지 강당으로 모이라고 친절하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두번, 세번 환기시킨다. 토속적인 식사는 훌륭했으며 모두들 친절했다. 모이는 시각까지 시간이 있으면 배안에서 Shopping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배려를 했다. 3월 24일 일요일, 금강산의 날씨는 너무 좋았다. 맑디맑은 푸른 하늘이며 화씨 75도의 포근한 날씨. 여행하기에는 안성마춤이었다. 3월 22일까지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황사가 너무 심해 하늘의 해가 안보였고 초등학교까지 휴교를 할 정도였고, 나중에 들었지만 23, 24일도 몹시 추웠다는데 어쨌면 여기는 어쨌면 이렇게 다를까.

버스에 몸을 신고 이동중에는 절대 사진을 찍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듣다보면 온정각에 도착한다. 2박 3일 여행은 구룡연, 만물상중 하나를 택하고, 마지막 날은 삼일포/해금강 코스를 택한다. 구룡연 코스는 계곡을 따라 맑은 물과 계곡 주위 경치를 보고, 만물상 코스는 가을 단풍 관광에 좋으며 암절벽이 빼어나나 오르는 길이 조금 힘들다.

온정각에서 40여대의 버스들이 제 갈길을 찾아서 떠나는데 나는 구룡연 코스에 속해 절터만 쓸쓸히 남아있는 신계사를 지나 미인송-곰개 자란 나무들의 모양이 얼굴이 예쁜 처녀들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을 5분 정도 지낸다. 등산하기 전 마지막 주차장에 도착하면 담배피우는 장소와 화장실이 있으므로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등산중에는 절대 금연으로 걸리면 벌금을 내야한다. 목란관(점심 휴게소)를 거쳐 금강문(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이 서로 엉켜 만들어진 문)을 지나노라면 맑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부끄러울 정도의 름주담을 보며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며 연신 뒤를 돌아보다가 어느새 비봉폭포에 이른다. 아직 춘삼월이고 폭포가 서향이라 눈과 얼음이 보인다.

이어 상팔담에 오르려면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 16개의 철사다리를 올라 가야한다. 어떤 철사다리는 경사가 너무 심하여 무릎이 앞 계단에 닿을 정도로 오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행은 젊었을 때 해야 하나보다. 상팔담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상에 오르니 썩악 하고 찬바람이 뱃속까지 식혀준다. 하늘의 선녀들이 맑은 물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날개 옷을 도둑맞았다는 나뭇꾼과 선녀의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인 깨끗하고 우아하고 멋있는 경치가 활짝 핀 진달래와 어루러져 깊고 깊은 계곡에 8개나 줄줄이 옥돌을 깔아놓은 것처럼 푸르름을 띄고 있다. 여덟 개의 모양이 저마다 다른 것이 자연인지, 그림인지 신선놀음에 호호백발이 되었다는 전설을 듣노라면 예라, 치과 집어 치우고 예서 살자는 생각이 절로 난다.

마지막 8번째 담에서 모아진 물이 절벽을 타고 떨어질 때 이것이 저 유명한 구룡폭포다. 높이가 82미

터, 깊이가 13미터이며 아홉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한국의 3대 폭포중 하나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룡폭포는 누구의 것인가. 7000만 우리 겨레의 자산이 아닌가. 휘둘러 굽이치는 물줄기는 선녀들의 향기 뿜는 머리카락이던가. 19~22살 되어 보이는 어여쁜 북한 여성 안내원이 "선상님, 그만 보시라구요. 너무 오래 보시면 돌로 변하니 이담에 또 와서 보시라구요"라고 말한다.

3~4시간의 등산중 많은 북한 청년, 처녀들의 도움을 받는다. 북한 여행, 전설, 일상 생활, 가족관계, 결혼관 등을 자연스럽게 나누노라면 친한 말동무가 된다. 그것이 길동무가 아닌가. 평범한 대화속에 우리의 공통점을 만들어가곤 했다. 그네들은 친절했으며 솔직함을 엿볼 수 있었다. 어떤 때 남녀간의 질은 농담을 해도 거부감이 없었다. 짧은 처녀가 티없이 맑고 밝은 얼굴에 귀까지 빨갛게 물들여질 때에는 내 나이 27살, 조상하 짱! 남남북녀라 하더니 역시 북한 처녀들은 이뻐다. 한명도 화장은 안했는데도 어찌면 그렇게 고운지 내 아내를 포함한 여자분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그네들에게서 동포애를 느낀다. 우리 일행중 걸음이 불편한 여자가 있었는데 4시간여를 옆에서 부축하며 말동무가 되어준 북한 처녀는 사범대학에 재학중이며 봉사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되어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내려오는 도중에 필름을 갈아 끼울 동안 카메라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않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김정숙이 다녀갔다는 기념비 주위에 반듯한 자리가 있어서 카메라를 놓았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북한 여성 안내원이 "선상님, 그곳은 신성한 곳이에요. 무엇을 놓거나 하면 안됩니다."고 해서 두 말 않고 "미안합니다"고 지시에 따른 적도 있다. 그네들의 정신무장은 알아줘야 할 것 같다. 모든 길은 깨끗했고 종이 조각 하나도 구경할 수 없었으며 담배는 꼭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했다. 보존 하나는 끝내주는데 우람한 바위에 그네들이 칭송찬애하는 사람에 대한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만 빼놓고 나무랄 데가 없다. 보존에 감사할 뿐이다.

신계사에 이르니 웅장한 절은 한국전쟁때 타버리고 네 곳의 기둥만 남았다. 금강산에는 4대 명찰이 있으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중 오직 표훈사만 내금강쪽에 남아있다. 마침 남한에서 경신회 소속 무속인(무당)들이 400여명 왔는데 신계사에서 전국의 혼들을 불러모아 굿을 하면서 통일 기원 큰 잔치를 하고 있었다.

온천과 저녁먹기전 서커스 구경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교예라 부르는 것이 예이며 예술감상으로 취급해야지 서커스 구경이라면 싫어한다. 평양 모란봉 교예단은 몇년전 한국에서 공연을 해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다. 세계에 내어 놓아 손색이 없는 북한의 자랑으로 많은 박수를 받는다. 한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금강원 식당도 소개한다. 북한이 운영하는 100% 순수 북한 식당으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하며 현대 아산에서 운영하는 부페와는 틀리다. 5명 이상일 경우 일주일 전에 얼마정도로 식사를 할 것인지 알려준다. 예약된 40명 정도의 일행은 앞뒤로 북한 당국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미니 버스를 타고 현대 아산 지역에서 벗어나 남북 장관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장소였던 금강호텔을 지나자마자 왼쪽 일층 건물로 간다. 금강호텔도 깜깜했지만 금강원 식당 역시 깜깜한데 안내를 따라 식당 입구를 들어서자 촛불 2개가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아! 전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일행 전부가 받는 순간 누군가가 한마디했다. "고급 식당은 촛불 아래 식사하지"

식단은 털게죽, 애저구이, 명태찌, 평양만두, 녹두지짐, 냉면, 수정과, 식혜 등 푸짐하고 맛있는 순복한식 음식을 개성 인삼술과 함께 곁들이니 코끝이 시큰해진다. 아리따운 북한 아가씨가 세련되게 서브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천정에 달린 전등 불빛이 하도 희미하여 고기가 구워졌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젓가락으로 집어 천정 가까이 쳐들고 확인을 하려해도 여의치 않아 대충 구워 먹었다. 그래도 짜증나지 않고 즐겁게 먹었다. 특히 평양만두는 손바닥만한 것이 2개나 나오는데 꿩고기로 만든 것 같아 맛이 기가 막혔다.

배가 부르니 노래가락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매니저되는 23살의 정말 예쁜 아가씨에게 노래를 청하니 스스럼없이 나오더니, "잘하지는 못해도 멀리 타향에서 조국을 찾아주신 동포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고 하더니 "우리의 희망과 꿈이 되시는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런 폴코스에 40달러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떠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식당을 나오기 전 스낵바가 있는데 술값이 무척 싸다. 온정각의 절반 값이다. 백두산 들쭉술을 무늬가 화려한 1500ml 도자기병에 든 것을 100달러에 샀는데 온정각에서는 똑같은 모양이나 680ml 도자기병에 든 것을 90달러에 팔고 있었다. 북한의 술병은 포장이 좋지않아 셀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밖으로 나오니 칠흙같은 어둠에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과 은하수가 장관을 이룬다. 흥얼거리지는 노래는 남북한에서 같이 불러주는 노래 반달(북한에서는 반월가라 한다)이었다.

오늘은 마지막 날 3일째다. 북한을 떠나는 날이다. 오전 중에 삼일포/해금강을 보러간다. 40~50분 가량 Bus로 이동 중에는 북한이 관할하는 지역을 지나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길 양쪽으로는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으며 이 때 북한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100yard마다 부동자세로 서있는 북한 군인들을 보게되는데 대개가 애똥 소년들 같아 보였으며 실같은 작은 눈으로 지나가는 우리를 보느라 눈알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농촌 모습, 논밭에서 일하는 남녀들, 자전거 타고 혹은 걸어가면서 앞만 뚫어지게 보는 선남선녀들, 또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기는 북한의 어린아이들, 무엇이 다르길래 말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침통한 내 모습을 안서러워 하는지 모르겠다. 손을 열심히 흔들어도 답례가 없는 나의 동포의 모습,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산과 바다여 대답하시라 누가? Bus안은 기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검소한 복장, 열심히 일하여 햇볕에 많이 거슬린 얼굴들, 나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이 지역은 DMZ와 너무 가까운 곳

이라 군인들이 많았고 군인 가족들과 걷는 모습이 자주 보여 최전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경비가 삼엄한 마지막 검문소를 지나는데 철문이 아주 컸으며 일단 Bus는 섰다. 일행의 명단 및 목적이 적힌 자료를 계급이 높은 군인한테 주고는 이윽고 철문이 열리면서 Bus가 지날 때 양쪽으로 나무와 풀이 전혀 없고 모래만 가지런히 깔려있는 중앙으로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가 수없이 동서로 이어져있다. 소위 남한의 간첩들이(?) 넘어올까봐 설치해 놓은 것이란다.

삼일포! 신선이 하루만 놀고 떠나겠다고 했다가 경치에 취해 삼일을 쉬고 갔다는 맑은 호수에 단풍관(관광객이 많을 때는 여기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쉬던 식당)과 어우러진 한 폭의 동양화 호수 가운데 와우도 바위섬에 지어 놓은 사선정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온다. 옆에서 같이 말동무를 하던 남자 안내원의 설명이 여름철에는 배를 타고 섬까지 가며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많아 찌개탕을 만들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으면서 삼일포는 수줍은 여인처럼 조용하고 변하지 않고 사시사철 철따라 옷을 갈아 입는 모습처럼 동양의 제일이라고 자랑을 늘어 놓는다.

나보고 어디서 왔느냐 물길래 미국에서 왔습니다 대답했더니 "사랑하는 조국을 버리고 왜 남의 나라에서 사십니까?" 무척이나 동정적으로 묻는다. 우리 한반도에는 7천만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땅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도 중국 사람처럼 세계 각처에 살면서 독특한 개성을 살리면 조국을 위한 것입니다. 나무도 너무 뻣뻣히 같이 자라면 크지도 않고 재목으로 쓸 것이 못 됩니다. 나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 저축하여 여해를 다닙니다. 남한에 가면 친척, 친구들을 만나고 Dollar 쓰고 북한에서는 처음 해보는 여행에 또한 Dollar 쓰고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는 Bush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한다. 아마도 북-미관계를 잘 알고 있는 양 싶었다 그러면서 옆에 같이 가던 북한 여성을 가리키면서 곧 결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원봉사차 왔으며 남한의 관광객을 안내하는 것이 보람

되며 통일이 어서 속히 되어야 한다고 힘주며 말해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답해주었다. Lip-Stick을 꺼내 장차 아내가 될 안내원한테 주라고 했더니 '미제'냐고 물길래 얼른 스치는 생각에 악의 축(Axis of Evil)말이 떠올라 불란서(France)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더니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같아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했더니 고맙게 받겠다고 웃음을 띄운다.

해금강은 한마디로 바다위에 떠있는 만물상이다. 여러 형태의 바위들이 푸르고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었다. 날씨가 아주 좋을 때는 남한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해금강이 보인다 하니 Florida 주의 남쪽 끝에 Key-West에서 Cuba가 보여 실향민들이 한숨을 달래고 고향을 그린다 하니 우리네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 싶다. 헤어진 부모, 형제, 가족, 친구들 애간장을 태우며 눈물을 짓는 두동강난 나의 조국의 슬픔을 밀려오는 파도에 지워본다. 바다가 어찌나 파랑과 깨끗한지 해파리가 동동 떠다니고 미역이며 다시다를 그냥 건져 먹는다 공해가 없으니까.

1000Yard떨어진 곳에는 영화 '나바론의 대포'들 처럼 절벽에 여러 개의 포문(Cannon)이 남쪽을 향한 것을 보니 섬짓한 생각된다. 긴장과 여유를 주지 않는 양쪽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나르는 갈매기를 보면서 "새야 너는 분단의 현실을 알라 너야 말로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평화의 잎을 입에 물어 전하러구나" 온정각으로 다시 와 마지막 쇼핑과 늦은 점심을 끝내고 마지막 출국 심사를 마치는데 "잘 가십시다" 먼저 인사를 한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만납시다" "한결 부드러워진 그네들과 악수를 하면서 설봉호로 향한다. 광장의 Speaker에서 흘러나오는 북한여성의 노래가 가슴을 축축히 젖힌다. "잘 가십시오. 안녕히다시 만나요" Bye, Bye! 금강산 잘 있거라 금강산 일만 이천봉!!

오마니

Dr. 김범수 (경희대 '79)

서울에 계시는 나의 오마니는 87세이다. 일 도와주는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덩그마니 큰 아파트에서 혼자 사신다. 자그마한 키에 굵슬거리리는 짧은 머리, 언제나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 위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신다.

혼자 지내는 오마니께 하루란 너무 긴 시간이다. 오마니는 가볼 수 없는 고향 땅, 평양을 가슴에 묻은 채 이번에는 미국에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그리워서 전화를 자주 하신다. "네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오는 것을..." 하면서 오마니는 가로놓인 태평양을 안타까워하신다. 아직 70대였을 때만 하여도 오마니는 거의 매년 미국에 방문을 오셨다.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하시면서 듣는 사람에게 비장한 마음이 들게 하지만 그 이듬해 또 다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 될 것이라 하며 멀고 먼 12시간 하늘 길을 날아 오셨다. 그렇게 힘든 길을 오셨다가 고작 한 달도 안 돼서 오마니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신다. "너희들이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지 않아... 열심히들 사는 것 보면 되었지. 내레 이제 가야해."

교회 노인성가대에서 20년간 피아노 반주를 맡아오신 오마니는 성가대원들이 기다린다고 다시 짐을 싸신다. 떠나시는 날, 오마니는 애써 명랑한 척 하신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입맛도 나지 않는 아침을 억지로 많이 드신다.

나는 막내로 자라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듬뿍 받고 컸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내 앞에 있었고 무엇을 필요로 해보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었다. 오마니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일 뿐, 한번도 내가 먼저 살피드리지 못한 채 유학을 왔으며 미국에 남아 살게 된지 벌써 23년이 되었

다. 잠깐씩 만난 시간을 빼면 오마니에게는 늘 그림고 그리운 자식일 뿐이다.

오마니는 다리가 아파 이제는 미국에 오지 못하신다. 심장도 약해지고 혈압도 좋지 않으며 기관지도 약하다. 거의 날마다 병원 신세를 지신다. 전화를 드려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신다.

엊그제 10년만에 한국에 다녀왔다. 늘 '바빠텐데 괜찮다' 하시던 오마니는 처음으로 전화에 대고 말씀하셨다. "하룻밤이라도 다녀가라우. 너무 보고 싶어." 고작 3일, 가고 오는 시간을 빼니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은 이틀도 안되었다. 학술 세미나에 일주일씩도 다녀오면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1-2주씩 의료선교를 다닌다면서... 그뿐인가, 아이들이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만사를 핑개치고 단숨에 달려가면서, 오마니가 외롭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내 몰랐을까?

인천 공항까지 따라나오신 오마니를 번쩍 안고 눈물 번진 뺨에 입을 맞춰드렸다. 어머니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오마니의 모습은 아주 아주 작았다.

Awaken

Dr. Kang, Chi Boum (K, '75)

Awakening from the middle of a deep sleep, I decide to get up and to do something to get my sleep back. Writing a diary used to be a big step. It is not only the easy way to get back to sleep but to enjoy the quiet time with writing my thoughts in English. It is so quiet that I can hear my wife's breathing and occasionally unclear sound outside my house. Maybe an airplane was flying high in the dark sky. Even though the whole world seems to fall a sleep, I am awakened like an airplane flying alone.

I feel a little lonely not because of the quietness, but it seems to me to come from deep inside my soul. A human being comes alone and goes alone. The loneliness brings me unknown fearfulness and anxiety. However, the moment I am writing, the fearfulness is forgotten. A diary is my trusted friend in whom I can confide. I am amazed to see that an empty paper can be such an intimate friend.

Since I am writing a diary, I feel no longer alone. Who knows? It may be my imagination to regard it as a friend under self-hypnosis. Thinking of a diary as a company, I feel warmth, fulfillment and even victory over the solitude. Sitting at the tiny table beside my bed makes me feel cozy. When I am ready to write a diary in the beginning, a strange thing happens. The thought of important daily life such as my job, family and religion disappears instantly. The logic of my life seems to me useless at the moment. There is no room for me to allow anything causing a headache under such a cozy environment.

I am in a good mood enjoying the feeling of freedom coming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rying to explore my own world. The tranquility drives me into my imaginary world. It is the time for me to feel the energy hovering in the universe and communicate with the unseen world. All my senses open wide not only to observe but also to hear the soundless crying in the universe. It is the time I can take off my mask and clothes to be naked in order to learn how much a human being could be pure and innocent.

As a matter of fact, I am not the man whom I want to be. There is always another me besides myself. It is the perfect time to see each other. As soon as we see each other, there is a loud screaming and crying. It is the time to learn why I am a born sinner. Is it the answer to why the loneliness never goes away in spite of being forgotten while writing a diary? I never know. The night goes, the morning comes. I will live the way I used to be and forget the screaming and crying in my imaginary world. This is my life, a so-called game of survival from the imaginary to the real world. The sound of a pen writing erases the sound of moaning inside.

Could dentistry be genetic?

Dr. Cecile Yoon-Tarlie (UIC)

Could dentistry be genetic? With all the research involved in the genetic code and its varied associations with craniofacial anomalies to dental agenesis, has any researcher ever studied whether becoming a dentist has a genetic component? I have often wondered.

My name is Cecile Yoon-Tarlie and I am the daughter of a dentist (Seok Han Yoon) and a retired dental lab technician (Young Hi Yoon). I grew up immersed in the dental world. As a very young child we moved from university to university as my father who was a dentist in Korea, began his dental career in the United States. He started from the prerequisite classes to dental school classes, to a master's degree in prosthodontics. I even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girl spending time with my parents in the dental office while my mother baked porcelain and my father casted gold. When I was old enough to work I used to even help with the office cleaning. But I have come along way since then. I completed my undergraduate colleg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 went on to dental school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Not only was I passionately committed to my dental education but I was also quite involved with the dental student council where I served as dental student council president my last year in dental school. I learned many lessons in dental school; however, sometimes the most instructive lessons are those, which show you what you don't enjoy. I learned that I wasn't fond of blood, surgery or missing teeth. Unlike my father loved to work with patients who had missing teeth I much preferred

working with patients who HAD teeth. Thus I continued my education and went into the orthodontic specialty graduation with a master's degree in oral sciences. Since then I have entered the real world working as an associate in a multidisciplinary practice as well as starting my own orthodontic practice from scratch. I have stayed committed to appreciating the value of an orthodontic education by teaching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department of orthodontics one day a week and publishing several articles. I am still quite involved with my various professional affiliations including the Illinois Society of Orthodontists where I serve as a trustee and to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cs where I serve as a board member of the New and Younger Member Advisory Committee. I have also co-founded a unique all women's interdisciplinary study club (LADE: Ladies Advancing in Dental Excellence). It seems that the mysterious dental gene must be dominant trait in my case!

This dental gene is even apparent with my only sibling: a brother eight years my junior. He went directly from high school to a six year bachelors / dental degree combination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He went from there to a GPR program and now he is serving as an oral surgery intern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Apparently he got the gene with the surgical/blood component. Needless to say our family dinner conversations are quite predictable and boring. All we seem to talk about are our teeth!

My own experiment with the dental gene may come one day. I am married to a physicist / entrepreneur / director of research analysis for a hedge fund company-obviously nothing close to dentistry; however, dentistry for me is quite the dominant homozygous gene! I guess only time will tell.

The Very First Patient

Dr. Daniel S. Kim (S, 67)

"Excuse me, Mame. What did you say?" Susan smiled with a happy face and again confirmed the gray haired gentleman. "Dr. Lee said that you don't have to pay for my service." She continued, "It is free for you, sir." She said with a big friendly smile across her full face. "I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doing here." He looked unhappy and confused. And he raised his voice "Let me see Dr. Lee" Susan moved fast to call for Dr. Lee to see this gentleman.

With Dr. Lee standing in front of him, the gentleman yelled, "Are you crazy? Did you tell her that your service was free for me?" Still yelling at Dr. Lee the gentleman continued, "I have paid for your whole tuition of your dental school, I have paid your living expenses through your dental school years, I have paid for all the books you need in dental school" Now the gentleman appeared really upset as he said, "Now you have finished dental school and are starting your own practice, what kind of business do you think you are running?" Embarrassed by the event taking place in front of his office staff Dr. Lee tried to calm down the overreacting gentleman.

"Dad, why are you so mad? It feels very right for me to give the best dental care I can with no charge, isn't it?" Dr. Lee looked at the proud man standing in his office and felt confident that he was doing no wrong for his father, and was filled with nothing but pride to have his father as his patient on his office's opening day.

The gentleman, now in a softer tone, thoughtfully replied, "Yes, my son, I'm your father. But, If you

give me your service free because I am your father, and then you are going to give away your expensive professional knowledge to all kinds of people because they are your relatives, friends, neighbors and so on, and so on. And if that happens then how can you return my investment back?"

Now, with the trace of disapproval in his voice, he spoke to his son, "Remember, Your service is very valuable. You did very hard work in dental school, It was very expensive to become a dentist, Never give away your expensive professional service free" he pulled out his wallet. "Here is my payment for your service today" and paid in full for the dental care he received from his son, Dr. Lee, and left the office as a proud father of a dentist. Mr. Lee was successful businessman in town and was known that he had a tough life building up his retail business. Years ago, when he was told that his son was accepted by a dental school, he was so happy that he offered him financial aid, which include the tuition, living expenses, and books for all dental school years. His son gladly accepted his offer.

Mr. Lee added one condition. He wanted to be the very first patient when he started his dental practice. His son happily agreed and he is in his office now as the very first patient on the grand opening day of his dental practice in his home town where he was born, raised and went school kindergarten through high school. After Mr. Lee left Dr. Lee's office the front desk personnel(s) and Dr. Lee looked at each other with embarrassment for a moment and went back to regular schedule of the day. But with what happened they began to think about Mr. Lee's intentions. Dr. Lee was smart enough to realize his father was right and since his own father has paid for his dental care, Dr. Lee has never hesitated to ask payment anyone for his professional dental service which was his fair share.

제9부 먼저 떠난 분들의 이름을 기리며

본 협회 회원으로 함께 고락을 나누다가 먼저 떠난 이들의 이름을 기리며

Dr. 정신실 선생(서울대 '56) 작고

Garden Office를 개업하시고 작은 아들 Dr. Anthony와 함께 Torrance Office를 개업하셨던 정신실 선생이 1996년 4월 1일 별세하였다.

Dr. 마부일 선생 작고

제7대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회장이었던 마부일 선생이 1996년 5월 21일 별세하였다.

Dr. 박노원 선생(서울대 '81, USC '95) 작고

1996년 7월 16일 근무 중 뇌일혈로 쓰러진 후 Santa Medical Center에서 입원 가료 중이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8월 5일 4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슬하에는 부인과 14세, 11세의 두 아들이 있었다.

Dr. 한의수 선생 작고

San Diego에서 개업하시던 한의수 선생이 1997년 12월 4일 향년 6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Dr. 이성우 선생 작고

Gardena에서 개업하시던 이성우 선생이 1997년 12월 14일 향년 67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Dr. 오석희 선생(서울대 '58) 작고

오석희 선생이 1998년 2월 향년 66세로 별세하였다.

Dr. 최한승(S '75) 선생 작고

최한승 선생이 1998년 11월 4일 심장마비로 별세하였다. 최한승 선생은 남가주 지역에서 개업 중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삼성종합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최한경(USC '92) 회원의 형님이다.

Dr. 조죽구 선생 작고

조죽구 선생이 2000년 6월 19일 별세하셨다.

Dr. 조신명 선생 작고

1937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조신명 선생이 2001년 9월 25일 별세하였다.

Dr. 조의식 선생 작고

조의식 선생이 2002년 3월 30일, 5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 조선 양과 아들 조선훈군이 있다.

Dr. 남정우 선생 작고

전 미국한인치과협회장을 지낸 남정우 선생이 2002년 11월 18일 오전 4시에 향년 84세로 별세하였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 USC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USC 치대임상교수와 남가주치과협회 면허시험관을 역임했으며 1998년에는 교황청이 평신도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인 성그레고리 기사훈장을 받았다.

Dr. 한성수(S '56) 선생 작고

한성수 선생이 2003년 3월 9일 서울에서 별세하였다.

Dr. 양진식 선생 작고

지난 20여년 간 San Jose 지역에서 Practice를 하고 많은 봉사를 했던 양진식 선생이 2003년 4월 2일 지병인 위암 후유증으로 향년 6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고인은 1964년 서울 치대를 졸업하였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Dr. 김정협(S '65) 선생 작고

김정협 선생이 2003년 7월 18일에 별세하였다.

Dr. 김선호(Y '77) 선생 작고

김선호 선생이 2003년 12월 6일에 별세하였다.

Dr. 이익주(USC, 85) 선생 작고

이익주 선생이 2004년 12월 10일에 별세하였다.

지난 36년,
남가주한인치과의사협회를 위해 헌신하고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고인들을 마음에 새기며...

제10부 사진으로 보는 역사



찰스윤 박사. 그는 남가주 구강외과 의사협회 회장으로 크게 존경을 받았다.



야태(亞太)회의에서 정보라 박사(왼쪽에서 4번째)와 박용덕 선배(왼쪽에서 2번째)의 모습.



평소 축구를 좋아했던 오재인 박사.
1986년 제13회 L.A. 월드컵 축구경기를 참관하는 오재인 박사



오재인 박사는 재미한인축구협회로부터 공로기념패를 받았다.



남가주지역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에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가 참가하다.(1980년)



제3대 장기열 회장과 당시 LA시장이었던 Sam 씨. (1973년)



장기열 회장(제3대)이 남기주건치대회 성인부분 수상자에게 우승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1975년)



남기주건치대회 아동부분 수상자와 제3대 장기열 회장(1975년)



차문호 교수 환영회. 앞줄 왼쪽부터 Dr. 박한중, 제9대 김낙희 회장, 오재인 박사, 차문호 교수, Dr. 장영택, 박재호. 뒷줄 왼쪽부터 Dr. 조규석, 박일진, 남정우, 우원섭, 임영규, 김윤성, 조용명 (1986년)



학회 시 이영옥 학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1986년) 제9대 임원들과 함께. 왼쪽부터 박일진 부회장, 김낙희 회장, 이영옥 학장, 조규석 총무



1986년 열렸던 학회에서 Dr. Henry Takei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1986년 학회 폐막만찬에서 변석두 대한치과의사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옥 학장, 정보라 박사, 김낙희 회장(제9대)



전임회장단 초청만찬 (198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LA 방문. (1988년)



제4회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1989년)



제4회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1989년)



북한의 한 치과병원을 방문한 제11대 이영송 회장. (1989년)



신입생 환영회 (1991년 7월)
 밑줄 왼쪽에서 3번째가 제11대 이영송 회장



뉴욕한인치과의사협회 연말파티에 참석한 제11대 이영송 회장 (1991년 12월)



제11대 이영송 회장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1993년)



제6회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1992년). 왼쪽부터 Dr. 윤홍렬(KDA 회장), Dr. Dick Neusma, 조규석 회장(제12대), Dr. Bruce Valentine(CDA 회장), Dr. 김주환(한국학술위원)



1992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에 참석한 당시 서울치대 학장이었던 이승우 학장(중앙)



1993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



제12대 조규석 회장이 ADA Conference에 참가하였다.(1992년) 조규석 회장 옆이 당시 ADA 회장이었던 Dr. Geraldine Morrow



조규석 회장(제12대)은 1993년 개최된 ADA Conference에 참가 하였다. 왼쪽 두번째가 당시 ADA 회장이었던 Dr. Jack Harris



시카고 지역 방문시 정보라 박사(왼쪽 두번째)와 함께 (1992년) 왼쪽 첫번째가 조규석 회장(제12대)



제12대 조규석 회장의 뉴욕 지역 방문 (1992년)



제12대 조규석 회장의 캐나다 토론토 지역 방문 (1992년)



제12대 조규석 회장 재임당시 역대 회장 모임 (1993년 10월 23일)



Perio 분과학회 모임 (1993년) 밑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조규석 회장(제12대)



제12대 조규석 회장 필라델피아 방문 (1993년)
 밑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조규석 회장



재미한인치과의료선교회 발족식 (1995년)



제13대 김광근 회장 달라스 방문 (1995년)
 밑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김광근 회장



제13대 김광근 회장 휴스턴 방문 (1995년)
 오른쪽 끝이 김광근 회장



제13대 김광근 회장 U. Penn. 방문 (1995년)



재미동부한인치과 의사협회에서 주최한 치과인의 밤에 참석한 제13대 김광근 회장 (1995년)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제13대 김광근 회장 (1995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광근 회장



1995년도 정기총회에서 협회기를 인수받은 제14대 권중건 회장



1995년도 재미한인치과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 역대 회장들과 함께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행 서울총회에 참석한 제15대 조상하 회장 (1998년)



재미동부한인치과 의사협회를 방문한 제15대 조상하 회장 (1998년)



재미동부한인치과 의사협회 치과인의 밤에서 연설하는 제15대 조상하 회장 (1998년)



처음으로 남가주 한인타운을 벗어나 개최된 남가주미국
한인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1999년 12월)



남가주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1999년)
오른쪽 끝이 조상하 회장(제15대)



2000년 12월에 있었던 남가주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 연말파티
(Long Beach Hyatt Hotel)



2000년 5월에 열렸던 KADA 골프대회에서 Loma Linda
치과대학이 우승하였다.



제10차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연말파티
(2001년, 라스베이거스)



제16대 한종철 회장이 재단이사회 조규석 이사장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2년 3월)



2001년 12월 뉴욕치과의사협회 치과인의 밤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있는 한중철 회장(제16대)



2002년 연말파티에서 연설하는 제17대 양효준 회장



2002년 연말파티에 참석한 역대회장 내외들과 귀빈들



2002년 연말파티에 참석한 역대회장 내외와 귀빈들



제18대 회장 취임식 (2004년)



제18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ADA 회장 Dr. Sekiguchi(말줄 왼쪽에서 3번째)와 역대 회장들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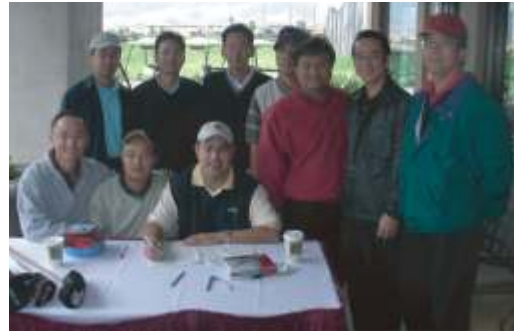
무료건강박람회에 참석한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2004년)
제18대 김학천 회장(왼쪽)과 제11대 이영송 회장(오른쪽)



제18대 김학천 회장 뉴욕 방문 (2004년 2월)
왼쪽이 뉴욕 KADA 강영진 회장



제1차 제18대 부회장단 회의 (2004년 10월 1일)
왼쪽부터 차기회장 박동훈, 부회장 최훈, 하선호, 김학천 회장,
부회장 홍영진, 서석만



KADA Golf Tournament (2004년 10월)



LADS President Installation에 참석에 참석한 제18대 김학천
회장 (2004년), 오른쪽이 신임회장 Dr. Namazikhah



LADS President Installation에서 전임 ADA 회장이었던
Dr. Sekiguchi와 함께 (2004년)



김학천 회장(제18대) CDA House of Delegates 모임에 참석 (2004년), CDA 회장 Dr. Webb 내외와 함께.



2004년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 연말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는 CDA 회장 Dr. Webb



2004년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 연말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는 UCLA 치대 학장 Dr. 박노희



2004년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 연말파티에서 고 이익주 선생을 위한 추모묵념 시간



제1차 남가주한인치과의사협회 기금모금만찬회 (2005년 3월 11일)



KADA 재단이사회 주최 골프대회 (2005년 5월)

제11부 회칙 및 정관모음

남가주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KADA of So. CA) 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본 협회는 남가주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Korean American Dental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라 칭한다.
제2조: 본 협회는 Los Angeles에 본부를 둔다.

제2장 목 적

- 제3조: 본 협회는 구강보건관리 향상을 위하여 학술발전과 의도 양양 및 의권의 옹호와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장 조 직

- 제4조: 본 협회 조직 및 편성을 회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적정수의 부회장과 임원 및 감사2명으로 한다.

제4장 사 업

- 제5조: 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1항: 학술발전을 위한 사업(예, 연례학술대회 등)
제2항: 구강보건 계몽을 위한 사업
제3항: 의도 양양과 의권 옹호에 관한 사업
제4항: 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제5항: 당국에 대한 건의 및 진정
제6항: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제7항: 정기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제8항: 기타 본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장 회 원

- 제6조: 본 협회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정회원
남가주지역 한인치과의사 및 한국계 미국인 치과의사로서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 및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2항: 명예회원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치과의료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받은 자로 한다.

- 제3항: 준회원
한국계 및 한국계 미국인으로 치과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항: 회원은 본 협회 회칙 및 결의를 지켜야 한다.
 - 제2항: 정회원은 년회비 및 기타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3항: 회원은 본 협회 회칙이 규정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별도 조직할 수 없다.
- 제8조: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제2항: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된 문제를 진정할 수 있고 회원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상 별

- 제9조: 본 협회 회원중 학술발전을 위한 공헌, 회 업무를 위한 희생적 봉사 또는 회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는 이사회 의 결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본 협회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의료인으로서 윤리와 도의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회원간의 친목을 파괴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7장 임원구성 및 기능

- 제11조: 본 협회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와 임원을 둔다.
회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적정수), 임원(적정수), 감사(2명), 이사(적정수)
- 제12조: 제1항: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장은 남가주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가 미국한인치과의사 협회의 본부가 되었을 때 미국한인치과협회 회장을 겸할 수 있다.
-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여된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리한다.
- 제14조: 회장은 적정수의 부회장, 임원, 이사를 임명한다.
- 제15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필요에 따라 협회전반에 대한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회장에게 건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7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장 임원회 구성 및 임무

- 제18조: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지명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19조: 임원회는 정기 및 임시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임원회는 월1회, 임시임원회는 회장 또는 2명 이상의 임원 요청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단 담당 임원은 단독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담당임원이 회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하고 차기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 ① 총무 ② 기획 ③ 학술 ④ 재무 ⑤ 공보 ⑥ 후생
- ⑦ 자재 ⑧ 섭외 ⑨ 보험 ⑩ 윤리 ⑪ 봉사 ⑫ 정관

제22조: 각부서 담당임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총무

- ① 회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기록관리
- ② 회원실태파악 및 명단 작성
- ③ 각종 회의, 행사주관 및 진행
- ④ 대내외적인 섭외활동
- ⑤ 기타 타이사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제2항: 기획

- ① 협회 장,단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 ② 예산편성
- ③ 협회 세무사업 계획
- ④ 각 이사와 협조하여 자료수집

제3항: 학술

- ① 종합학술대회 준비
- ② 정기보수교육 계획
- ③ 학회지 발간
- ④ 새로운 학술정보수집 전달

제4항: 재무

- ① 회비징수 및 지출
- ② 예산편성 및 결산
- ③ 재산관리

제5항: 공보

- ① 본 협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업무
- ② 본 협회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6항: 후생

- ① 회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
- ② 운동경기 및 야유회 주관

제7항: 자재이사

- ① 치과기재 및 의약품 공동구입 알선책 강구
- ② 새로운 기재 의약품에 관한 정부수집 및 전달

제8항: 섭외

- ① 본 협회에 다른 단체와 교류 및 협조
- ② 모국 치과의사협회와의 연락 및 협조

제9항: 보험

- ① 의료보험 신청에 관한 제반기술 정보제공

② 각종 보험규정 수집 배포

③ 오진보험 단체계약 알선

제10항: 윤리

① ADA 윤리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제11항: 봉사

① 사회 봉사에 관한 업무

제12항: 정관

① 정관 수정에 관한 사항

제9장 재 정

제23조: 본 협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매 회장단 임기만료시 일체의 잔여금액을 재단이사회에 이양한다.

제25조: 본 협회의 재정은 총회의 결의없이 은행예금 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장 선 거

제26조: 회장선거를 위하여 선거 2개월전에 전회원에게 선거공고를 하며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단에서 4명을 선출하고 각 입후보자가 회장입후보 등록시 2명을 추천한다.

제27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30일 전까지 본 협회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과 소정의 입후보자 등록비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선거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년 회비를 납부한 정회에 한하여 투표권을 인정한다.

제29조: 총 투표자 수에서 최대득표자가 당선되며 같은 표수가 되었을 때는 재투표에 의하여 당선을 결정한다.

제30조: 차기회장에 당선된 자는 회장을 보좌하며 2년 후에 회장으로 임기를 계승한다.

제11장 회 의

제31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재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제32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33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임시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이 요구할 시 개최한다.

제12장 회 계

제35조: 본 협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장 재단이사회

제36조: 본 협회와 별도로 재단이사회를 설립하고 재단이사회 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분과협회

제37조: 본 협회에는 각 분과별로 학회를 둘 수 있다.

분과 학회장은 각 분과학회 내에서 선출하며 매 분기별로 협회장에게 학회활동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장 기타

제38조: 본 회칙은 총회 인준된 날짜로부터 발효한다.

제39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회칙에 준한다.

BY-LAW OF KADA OF SOUTHERN CALIFORNIA

CHAPTER 1 NAME AND OFFICE

- Section 1.01 The name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the Korean American Dental Associ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KADA of Southern California".
- Section 1.02 The principal office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located in the city of Los Angeles.

CHAPTER 2 PURPOSE

- Section 2.01 The purpose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 a. to promote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its members,
 - b. to promote the achievement of high ethical standard of dental practice and continuing education,
 - c. to promote and uphold the rights of its members.

CHAPTER 3 ORGANIZATION

- Section 3.01 There shall be following officers: President, Immediate - Past President, President-Elect, Vice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Editor and Auditors.
- Section 3.0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nsist of Office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Committee Members.

CHAPTER 4 PROJECTS

- Section 4.01 Goals and projects of this organization are:
- a. to obtain academic achievements,
 - b.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oral health,
 - c. to increase awareness of member's rights and duties,
 - d. to encourage and establish healthy relationship with other professional and social organization,
 - e. to publish periodicals, and
 - f. to provide continuing education

CHAPTER 5 MEMBERSHIP

- Section 5.01 The membership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as follows:
- a. Active Member:
Korean or Korean-American dentist in southern

California area, who pledges to adhere to the By-Laws of this organization and who pays its annual dues;

b. Honorary Member:

To be a honorary member of this organization, an individual shall have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advancement of art and science of dentistry and be nominated by at least 10 active members;

c. Associate Member:

Korean or Korean-American dental students,

Section 5.02

Duties of Members

a. An active member must adhere to the By-Laws of this organization,

b. An active member must meet the annual dues,

c. An active member is prohibited from organizing any organization which shares the same purposes outlined in Chapter 2 of the By-Laws,

Section 5.03

Rights and Privileges

a. An active member shall be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vote and to hold an office,

b. An active member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mediation of disputes between other members and his or her patients,

CHAPTER 6 RECOGNITION AND DISCIPLINE

Section 6.01

Members who have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organization shall be recognized upon the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Section 6.02

Any member shall be suspended or expelled from membership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following causes:

a. Failure to comply with membership duties,

b. Unethical Practice and conduct,

CHAPTER 7 OFFICERS AND THEIR AUTHORITY

Section 7.01

This organization shall consist of following officers:

President, Immediate-Past President, President-Elect,

Vice President(s), Secretary, Treasurer, Editor, and Auditor(s)

Section 7.0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is organization,

The President shall preside over all meetings and shall appoint all officers and board directors,

Section 7.03

The Immediate-Past President shall advise and assist the President using his or her past experience,

Section 7.04

The President-Elect, who shall be the President in 2 years, shall assist the president and learn the duties of President,

Section 7.05

The Vice President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all matters and take

- full responsibility as the President in all matters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as the President in case of President's inability to perform as active President.
- Section 7.06 The Secretary shall organize all meetings, keep the minutes of such meetings and be responsible for all general business matters.
- Section 7.07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manage the funds, and plan and balance the budget.
- Section 7.08 The Editor shall be responsible for publishing newsletters.
- Section 7.09 The Auditor shall be elec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is organization, and shall supervise the collection and banking of all monies of the organization and make written financial reports to the President.
- Section 7.10 The Officers shall serve a two-year term.
- Section 7.11 The President, with recommenda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may appoint necessary Advisors.

CHAPTER 8 DUTIES OF BOARD OF DIRECTORS AND OFFICERS.

- Section 8.01 The President shall appoint Board of Directors and call board meetings.
- Section 8.02 All issues must be decided by a majority vote of Board Directors who are present at the meeting. There is no required quorum. Any urgent matters can be resolved by any Officer or Director with the President's approval.
- Section 8.03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preside over the following committee:
1. Planning
 2. Academic Affairs
 3. Publications
 4. Social Affairs
 5. Materials
 6. Public Relations
 7. Insurance
 8. Ethics an Peer Review
 9. Community Services
 10. By-Laws
- Section 8.04 Duties of each Committee are follows:
- a. Planning
 1. Short and long-term management planning
 2. Budget projection
 3. Plan meetings and events
 - b. Academic Affairs
 1. Organize conferences
 2. Plan continuing education seminars
 3. Publish journals
 - c.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 1. Publish materials(e.g. newsletter) related to KADAUSA
- 2. Business relating to distribution of information
- d. Social Affairs
 - 1. Promote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members
 - 2. Organize spring events and outings
- e. Materials
 - 1. Arrange group purchasing of dental equipment and supplies
- f. Public Relations
 - 1. Establish relation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 2. Establish relationship with other dental associations in Korea
- g. Insurance
 - 1. Assist members with insurance needs
- h. Ethics
 - 1. Familiarize members with ethics and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i. Public Service
 - 1. Engage in community services
- j. By-Laws
 - 1. Amendments of By-Laws

CHAPTER 9

- Section 9.01 The funds of this organization shall consist of annual membership dues, donations, contributions and other miscellaneous funds.
- Section 9.02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funds at the end of the term must be transferred to the KADA Board of Trustees.
- Section 9.03 The funds shall be deposited in a bank account. The funds shall not be used for investment purposes unless there is a prior approval at the annual membership meeting.

CHAPTER 10 ELECTION

- Section 10.01 All active members shall be notified of an upcoming election of the President at least two months prior to such election. An ad hoc election committee shall be formed to manage the election.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ppoint 4 members to the election committee. Each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shall appoint 2 members to the election committee.
- Section 10.02 A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must be endorsed by at least 30 active members. A candidate must file a written intent to run to the election committee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election with the current application fee.
- Section 10.03 Only active members are eligible to vote.

Section 10.04 The voting shall be through an anonymous method.
A candidate with the most votes will be elected as the President. In case of a draw, additional votings shall be held until there is a majority candidate.

CHAPTER 11 MEETINGS

Section 11.01 There shall be one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Section 11.02 Special membership meeting may be called by the president. Also, it may be called upon a written request to the Board of Directors signed by at least 50 members.
Section 11.03 There are regular and special board meetings. The regular meeting shall be held once a month. The special meeting may be called by the President or any two(2) Board Members

CHAPTER 12 AUDIT

Section 12.01 The fiscal year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CHAPTER 13 BOARD OF TRUSTEE

Section 13.01 A Board of Trustee independent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formed. The Board's By-Laws shall be drafted separately.

CHAPTER 14 STUDY GROUP

Section 14.01 Study groups may be formed by members. A study group must elect a chairperson who will report its activities to the President.

CHAPTER 15 MISCELLANEOUS

Section 15.01 The By-Laws of this organization shall take effect upon adoption by, and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hip.
Section 15.02 Any other provisions not stated herein shall be adopted according to common regulations. This organization shall be governed according to the no-profit corporation laws of California.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재단이사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본 재단이사회는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재단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재단 이사회는 미국 남가주 Los Angeles에 그 본부를 둔다.

제2장 목적

- 제3조: 본 재단이사회는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하며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의 활동을 위한 회관 구입 및 그 운영을 부차적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조직

- 제4조: 본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과 4명의 상임이사(총무, 재무, 운영, 사업) 및 2명의 감사를 둔다.

제4장 사업

- 제5조: 본 재단이사회는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 제6조: 제1항: 창립이사
1987년 10월 말까지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한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 한다.
제2항: 이사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회원은 누구나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 함으로써 이사가 될 수 있다.
제3항: 명예이사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회원이 아니고 본회 목적에 동의하며 공헌한 자로서 총회참석 이사의 과반수찬성으로 명예이사로 영입한다.

제6장 재정

- 제7조: 본 재단이사회 재정은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의 매 회장단 임기 만료 시 이양된 금액과 이사회영입 회비, 기금조성 그리고 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제7장 이사영입회비

- 제8조: 이사영입회비 금액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회의

- 제9조: 본 재단이사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0조: 본 재단이사회 임시총회 및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재단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재단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KADASC)의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장 선거와 임기

제12조: 재단이사장과 감사는 재단이사회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총 투표수의 최대득표자가 당선된다.

제13조: 재단이사회 부이사장은 남가주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14조: 상임이사는 재단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장 회계

제16조: 본 재단이사회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본 재단이사회는 매년 결산보고서를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1장 착수금(Seed Money)대여

제18조: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 신임회장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재단 이사회는 신임회장단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하며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한다.

제12장 정관개정

제19조: 정관개정은 필요시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3장 기타

제20조: 본 회칙은 총회 인준된 날짜로부터 발효한다.

제2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칙에 준 한다.

개정: 2004년 5월 17일

BY-LAW OF KADA SC BOARD OF TRUSTEES

CHAPTER 1 NAME AND OFFICE

- a. This Board shall be called the Korean American Dental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Board of Trust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ard"
- b. Its office shall be located in the City of Los Angeles, California in USA.

CHAPTER 2 PURPOSE

- a. The Board is creat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the fund. The second purpose of this entity shall be the purchase and operation of the KADA SC center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KADA SC.

CHAPTER 3 ORGANIZATION

- a. The Board shall have the following officers: Chair, Vice-Chair, Secretary, Treasurer, Planning Manager, Project Manager and 2 Auditors

CHAPTER 4 PROJECTS

- a. The Board shall engage in managing the fund of KADA SC including fundraising activities.

CHAPTER 5 TRUSTEE

- a. Charter Trustee: Any active KADA SC member who has paid director's fee by the end of October, 1987, shall become charter trustees.
- b. Trustee: Any active KADA SC member who has made his or her contribution set by the Board for the year shall be trustees.
- c. Honorary Trustee: A non-KADA SC member who has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Board and who has received recommendations from more than half of the trustees shall become an Honorary Trustee.

CHAPTER 6 FINANCE

The general fund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The remaining funds at the end of the terms of each KADA SC presidency.
- b. Dues from the Trustees.
- c. Donations

CHAPTER 7 DUES

- a. Dues of Trustees shall be set by the Board when necessary.

CHAPTER 8 MEETINGS

- a. The Board shall hold one annual meeting and the persons in attendance shall constitute

a quorum regardless of numbers. All decisions are made with the approval of the two thirds in attendance.

b. The Chair shall have the power to call upon special meetings.

c. The officers of the Board can attend the meetings of KADA SC.

CHAPTER 9 ELECTION AND TERM OF OFFICE

a. The Chair and auditors shall be elected by the most vote of the persons in attendance.

b. The president of KADA SC should be the Vice-Chair as an ex-officio.

c. The Officers other than Auditor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c. The term of the Officers shall be two years.

CHAPTER 10 FINANCE

a. The fiscal year of this Board shall be from April 1 to March 31 of the following year.

b. The Board shall provide yearly bank statements to the KADA SC and report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KADA SC.

CHAPTER 11 LOAN

a. When a new KADA SC Presidency begins, the Board shall loan a sum of the appropriate amount to KADA SC, interest free.

b. The loan shall be paid back to the Board in 6 months.

CHAPTER 12 AMENDMENT

a. The Board can amend its bylaw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the persons in attendance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decision is made with the approval of the two thirds in attendance.

CHAPTER 13 MISCELLANEOUS

a. The By-Laws of this Board shall take effect upon adoption by and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the Trustees.

b. Any other provisions not stated herein shall be adopted according to common rules and Regulations.

Amended on May 17th, 2004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Korean American Dental Association of USA) 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 이름
본 협회는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KADA)라 한다.
- 제2조: 본부
본 협회는 회장이 활동하는 지역협회에 본부를 둔다.
-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구강보건관리 향상을 위하여 학술 발전과 의도 양양 및 의권의 옹호와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4조: 비영리 목적
본 협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등록이 된다. 어떤 협회의 소득이나 이익은 어느 특정회원이나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리 것이다.
협회 활동의 많은 부분이 선전, 정치나 입법을 위한 행위에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제2장 지역협회(Component Societies)

- 제1조: 지역협회
각 지역의 지역협회가 KADA의 지역대표가 된다.
각 지역협회는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회원은 KADA의 회원이 된다.
- 제2조: 지역협회의 형성
지역협회는 서면으로 지역협회 신청서를 본 협회에 내며 협회는 규정에 맞추어 신청서를 분석, 검토, 결정한다.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회회장과 총무의 직인이 든 증서를 보낸다.
- 제3조: 지역협회의 수
한 단체만이 그 지역의 지역협회가 된다. 지역협회는 각자의 회칙을 정하며 이는 본 협회 총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 제4조: 지역협회의 회원
각 지역협회는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회원의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치과의사와 한국계 치과의사로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수 및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3장 회원

- 제1조: 모든 지역협회의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협회의 회원이 된다.
- 제1항 정회원
미국에 거주하는 치과의사 및 한국계 치과의사로서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수 및 회비를 지역협회에 납부한 자에 한한다.
- 제2항 명예회원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치과의료계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인준 받은 자로 한다.

제3항 준회원

한국계 및 한국계 미국인으로 치과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회원은 본 협회 회칙 및 결의를 지켜야 한다.

제2항 정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항 회원은 본 협회회칙이 규정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별도 조직할 수 없다.

제3조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회원은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간 각 지역협회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Finance)

제1조 회원과약

매년 1월 31일까지 각 지역협회는 다음을 본 협회에 보고한다.

1. 지역협회의 회원수와 명단
2. 지역협회의 임원 명단
3. 지역협회를 대표한 대의원(Delegate) 명단
4. 협회의 지역협회 간에 동의한 협회비 납부에 관한 평가보고

제2조 연협회비(지역협회가 협회에 보내는 회비)

1. 협회비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새로 조직된 지역협회(10월 1일 이후)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협회비를 납부한다.
7월 1일 이후 10월 1일 이전에 형성된 협회는 책정된 협회비의 1/2을 납부한다.
3.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 임 원

제1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차기회장(직전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

1.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총무, 재무, 분과위원장은 임명된 회장이 선임한다.

제2조 임기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계년도에 기준을 둔다.

제3조 회장선거

1.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에서 회장을 결정 못할 시는 담당지역협회를 결정하여 그 지역협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2. 미국한인치과의사협회의 회장은 지역협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최대득표자가 당선되며 같은 표수가 되었을 때는 재투표에 의하여 당선을 결정한다.
4. 선거는 투표로 하며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5. 차기회장에 당선된 자는 회장을 보좌하며 2년 후에 회장으로 임기를 계승한다.
- 제4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의거해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회장은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 의장이며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협회를 대표할 다른 임원을 임명하며 다른 모임이나 회의에 파견할 수 있다.
 2.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선거 직후부터 임원회의 임원이 된다.
 3. 총무
총무는 대의원회의와 임원회에 참석을 한다.
모든 모임과 회의에 서기로 일을 하며 모든 투표와 모든 행사의 기록을 한다.
대의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소집을 공고 연락을 한다.
총무는 회칙의 원본과 Amendment를 보관한다.
총무는 명예회원 추천서, 지역협회설립 신청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하며, 대의원회에 결정을 묻는다.
 4. 재무
재무는 협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회비의 징수 및 지출을 정책위원회의 결정 아래 추진한다.
 5. 회장 유고시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제6장 회 의 (정기총회)

- 제1조 회의
전 회원의 정기총회는 대의원회의의 결정 아래 매년(년1회) 열릴 수 있다.
이 회의는 최소 30일 이전에 전 회원에 공고된다.
임시회의는 임원회(이사회)의 요구나 회원 25% 이상의 요구시 열린다.
이 회의는 최소 10일 전에 전 회원에 공고된다.
- 제2조 진행절차
정기총회는 회장의 연설과 학술대회로 진행이 된다.
- 제3조 참석자
정기총회는 모든 회원과 그의 손님이 참석을 할 수 있다. 모든 손님은 총회 전에 지역협회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
- 제4조 주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1. 총회에 제시된 어떤 주제에 관해 대의원회의에 건의를 할 수 있다.
 2. 치과계의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 조사할 분과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진행
정기총회 담당위원회는 최소 15일 이전에 총회의 프로그램을 회원들에 공고해야 한다.

제7장 대의원회의 or 대표단회의(House of Delegates)

제1조 대의원회의는 협회의 정책결정기관이며 협회는 모든 사업, 행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임무가 있다.

1. 학술 발전, 의도 양양 및 의권의 옹호에 관한 연구를 한다.
2. 미주치과계의 흐름을 회원에게 전하며 지역협회의 발전과 조직에 도움을 준다.

제2조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최소 1년에 한번 열릴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회장이나 대의원 20%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3조 정기회의의 공고는 최소 30일 이전에 토의사항과 함께 대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임시회의는 최소 10일 이전에 회의목적과 함께 대의원에게 전해져야 한다.

제4조 대의원 선출 및 권한

1. 대의원은 협회의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회의에 투표권을 갖는다.
2. 각 지역협회를 대표할 대의원을 대의원회의에 보낸다.
한명의 대의원이 한 지역을 대표하되 각 대의원은 회원 20명당 1표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예) 1~20명의 회원을 가진 지역의 대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21~40명의 회원을 가진 지역의 대의원은 2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101~120명의 회원을 가진 지역의 대의원은 6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3. 회원의 수는 전년도에 회비를 낸 회원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제5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각 지역협회는 대의원의 변화가 있을 시 즉시 협회 총무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제6조 회의정족수

회의의 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임원회 or 이사회(Executive Committee)

제1조 구성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차기회장(전직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회장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대의원회의가 열리지 못할 시(대의원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긴급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시 편의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나 임원 3명 이상의 요구시 열리며, 안건은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회의는 재직임원 과반수 이상의 재적시 유효하다.

제9장 분과위원회(Committee)

- 제1조 정관위원회
- 제2조 학술위원회
- 제3조 섭외위원회
- 제4조 감사위원회
- 제5조 재무위원회
- 제6조 회원위원회
- 제7조 학술대회위원회
- 제8조 윤리위원회

치과의사회 윤리규정

제1조 본 윤리규정은 우리 회원의 지위향상과 서로 상호간에 융화를 위하여 존속하며 회장단과 임원진(간사제외)에 의하여 통솔된다.

제2조 각 미국면허 획득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1항 새로 개업을 하는 회원을 위하여 재미한인치과의사회 명의로 축하인사를 한인신문에 12회 6"×4"이하로써 게재한다(3개월 내).
- 2항 개업의사와 동업으로 시작을 하거나 새로 이전을 하는 회원을 위하여 6회 6"×4"이하로써 게재한다(3개월 내). 이상의 1항, 2항은 각 해당되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되며, 비용은 각 해당개인이 부담한다.
- 3항 구인광고는 회수에 제한 없이 2"×4"이하로써 구인란에 낼 수 있고 치과의사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다.
- 4항 무료 구강검사나 구강보건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경우는 미리 본 치과의사회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 5항 치료비는 각 회원의 양심이 결정할 수 있지만 너무 회원 상호간에 차이가 있지 않도록 서로 우리 회원의 지위를 타락 시키지 않도록 한다.
- 6항 회원 서로 상호간에 비방이나 인신모욕이 없도록 협조한다.
- 7항 미국치과의사회(ADA)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인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 한인록이나 TV, Radio 등에는 개인으로서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그때그때 필요시에 따라 회장단과 임원진, 개업회원의 결정에 의하여 한인사회에 알리도록 한다. 기부(donation)로서나 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각 단체에서 임의로 게재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해명을 해당자가 해야 한다.
- 8항 이사의 규정을 협조하지 않고 위반하는 회원은 재미한인치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이사회에서 결정)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고 이사회에 든 비용을 부담하며 본회에 100 불을 찬조금으로 기부한다.
- 9항 본회에서 제명되었을 경우는 3회에 한하여 한국인 신문에 이를 공고한다. 제명된 회원에게는 본회 회원으로서는 미국치과의사회협회(ADA) 가입 추천을 해줄 수 없다.
- 10항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일 년이 경과한 후에 10인의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를 거쳐 다시 정회원이 될 수 있으나 100불을 본회에 찬조금으로 기부해야 되며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둔다.
- 11항 이사의 규정을 위반하여도 미국법에 하등에 저촉이 되지 않겠으나 이것은 우리 전체회원의 지위향상과 융화를 위하는 길 이므로 서로서로 협조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1974년